

KIA, 용병 스캇 '제값' 할까?



그동안 해매오던 '용병타자' 스캇 시볼(31·KIA)이 부활을 알리는 무력시위를 펼쳤다.

스캇은 6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현대전에서 1-0으로 앞선 5회 선두타자로 나와 좌월 솔로포를 뽑아내는 등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불꽃타를 날리며 팀의 4-0 승리를 견인했다. KIA는 이날 승리로 39승 39패 3무로 두산을 0.5게임차로 누르고 4위에 복귀했다.

지난달 12일 시즌 도중 KIA에 합류한 스캇은 앞선 13경기에서 47타수, 6안타(1 홈런), 타율 0.128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기에 이날 활약은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선 16타수 2안타 1타점, 타율 0.125에 병살타도 2개나 될 정도로 팀 전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스캇은 이날 경기 후 모처럼 환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매년 중요 승부처에서 병살타를 날발하더니 스캇 자신도 마음이 편치

13경기 1할대 부진 털고 홈런 등 모처럼 '불꽃타' 현대전 4-0 승리 이끌어

않았던 것.

스캇은 현대에 0-1로 패한 지난 5일 3차례의 득점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뒤 팀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기도 했다. 2회 2사 2루서 첫 타석에 들어선 스캇은 유격수 팡블을 아웃으로 선취 득점 기회를 놓치더니 4회에 또 2사 1,3루서 삼진 아웃으로 고개를 떨궜다.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7회에는 1사 1루서 유격수 앞 병살타로 공격의 맥을 끊었다. 결국 KIA는 8회 1점을 내줘 0-1로 패하고 말았다.

스캇은 이어앞서 지난 1일 두산전에서도 1-1로 동점이던 4회 1사 1,2루 역전찬성서 3루수 앞 병살타로 물러났고 KIA는 3-5로 패했다.



KIA 용병 타자 스캇 시볼.

스캇은 지난달 30일 SK전에선 2-0으로 앞선 3회 무사 1,2루서 3루수 앞 팡블로 누상의 주자를 모두 아웃 시키며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KIA는 다행히 선발 그레이

싱어의 8이닝 1실점 호투로 2-1 진판승을 거뒀다.

올 시즌 중도 하차한 '용병타자' 서브넷 때문에 전반기 내내 속앓이를 해온 KIA로서는 기대했던 스캇마저 부진하자 난감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시즌 중 교체 용병타자로 들어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로서의 기대는 스캇의 부진을 예견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엮여 보였다.

야구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시즌 중간에 들어온 타자중 출장했던 경우는 2002년 현대의 프랭클린 정도밖에 없다"며 스캇 등 교체 용병들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처럼 시즌 중 교체되는 용병들이 부진한 것은 겨울 전지훈련 때부터 한국야구를 체험했던 기존 용병들보다 실력은 물론 한국야구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

하지만 스캇의 경우 기존 용병 타자들과는 성향이 다르다는 게 KIA 프런트의 분석이다.

서정환 KIA 감독은 "스캇의 성향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다만 볼 카운트가 불리해 지면 다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편안한 야구를 지시했고 점차 한국야구에 적응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된다"며 스캇에 대한 평가절하를 경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즐거운 사라포바

러시아의 마리아 사라포바가 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이쿠라 클래식 테니스 대회 준결승전에서 패티 슈나이더(스위스)를 2-0(7-5, 6-4)으로 완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위와 불과 6타점 차이 타점왕도 넘본다

이승엽



“차세대 메이저리거 후보” 美人론 집중 조명

지난 5일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턴에서 시즌 35호 홈런 포함, 3타점을 올린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타점 1위 등극도 가시권에 올랐다. 이승엽은 6일 현재 75타점으로 81타점인 이 부론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타이론 우즈(주니치), 무라타 슈이치(요코하마)에 이어 3위 한 단계 올랐다. 그동안 4위에서 머물던 이승엽은 지난주 홈런과 타점을 몰아치면서 1위와 격차를 6개로 좁혔다.

요미우리의 잔여 경기는 앞으로 46게임. 지금의 페이스라면 계산상으로는 애초 목표였던 100타점을 넘어 109개까지 가능하다. 요미우리는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가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한일통산 400홈런 돌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미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AP 통신은 6일(한국시간) ‘아시아에서 400홈런을 때린 뒤 이승엽이 미국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제목의 도쿄발 기사를 통해 이승엽의 홈런 기록과 선수 경력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AP 통신은 기사의 서두에서 이미 이승엽의 메이저리거 진출을 못박았다.

기사는 ‘일본프로야구에서 탄생할 차세대 메이저리거 후보는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어 이승엽이 시즌 35호 홈런을 터뜨리며 센트럴리그 홈런 1위, 장타율·최다안타·득점 1위를

“추, 노터치”

웨이 클리블랜드 감독 추신수 장기 맡겠 뽀내게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당분간 자신의 장기를 뽀낼 시간을 얻을 전망이다. 6일(이하 한국시간) 메이저리거 공식 홈페이지(mlb.com)에 따르면 에릭 웨이 클리블랜드 감독은 “추신수가 하고자 하는 걸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그를 데려와서 박리그로 올린 데도 이유가 있다. 그에게 시간과 자리를 줘서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하고 경기가 편안해지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 감독은 “첫 인상으로 따지면 추신수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최근 연일 장타를 날린 공격)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격, 수비, 주루를 모두 통틀어 얘기하는 것이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감독은 “추신수는 충분히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테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불가리아에 1-3 패배

2006 월드컵 국제배구

한국 남자배구가 2006 월드컵 국제대회에서 유럽의 강호 불가리아에 또 가를 못했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5일 밤(한국시간)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열린 예선리그 D조 불가리아와 원정 1차전에서 1-3(21-25 25-16 16-25 19-25)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불가리아에 3전 전패를 당하며 2승5패를 기록한 반면 불가리아는 6승1패로 쿠바와 공동 1위를 달렸다. 한국은 1세트부터 장신 세터(196cm) 송병일(현대캐피탈)을 선발로 내세워 높이 장점을 살렸지만 불가리아의 강사브에 리시브가 흔들리고 중앙공공이 가로막혀 21-25로 기선을 빼앗겼다.

(08 : 55-Xports)

-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13 : 00-KB-SSKY)
- ▲프로야구 2군리그(현대 : 두산)(13 : 30-MBCSPN)
- ▲2006 국제여자 비치발리볼대회(14 : 00-KBS2)
- ▲제천 장사씨름대회(14 : 10-KBS1)

에셋코리아 부동산건설팀 - 정기윤법무사

법원 경매

☎ 222-8446 (법원경매담당장) ☎

▶ 아파트	▶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동권(9구) ■수도권(9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 주 택+대지	▶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 다가구(원룸)	▶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 근린시설	▶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 숙박시설	▶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9구) ■전국(9구)

최단일계공인중개사
☎ (02)972-4585 ☎ 011-604-6205
(종로구 부평1C빌딩 512호)

첨단중심 상업지역
·정부지방청사 예정지 앞 200평
·부영·호반·영광·부근 146평, 135평
·신기상 상업지역 100평 4필지
·음식점 적합 부지유망 2301평

첨단 원룸 건물급매
·대72-건1145 원룸15개 무통83개
·쓰러림 1개 보이+1천만
·월490만 매5억 조경가

첨단 아남전차 인근 부지
·장상, 남편, 전원면 담양 대전편
·급매를 다양 상담현

상가건물
·대70-건1110 보인현인인 월180만
·매매4억(조경가)
·호천2차 미라보 4입구 월계조교양
·대80-건200평 보인현5백만
·월58081만 동지3억5천 매6억

첨단 인근 자연·생산지
·북구 지하층 30m 도로인근
·전·후면 도로
·가든, 차집, 참고로류공원까지 440평
·북구 신상동 1800평, 3400평
·광동, 창고 건축용 아리직 적합

싼 공장, 창고부지 "급매"
·광안구 도철동 해남3만 9천도로 부근
·560평, 700평, 1100평
·북구 삼소동 30m 도로점
·아남광장 뒷쪽 1000평
·가든공장 창고, 물류 최적지

금부부동산건설팀
☎ (02)261-8949 ☎ 011-602-2233
(북구 우산A 룬동초등학교 정문앞)

매일부동산
☎ 011-613-3334 ☎ (02)233-3372
(법원 경매법정 앞건물)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 (062)573-0775 ☎ 011-786-3311
(마곡동 빅마트 옆)

정원공인중개사
☎ (02) 227-3031
(☎) 011-608-1101

**본업소는
총장로·황금동
금남지하상가**

임대 매매 전문중개업소입니다.

위치: 충장로2가(계일 은행에서 총장로 쪽 50m 3층)

아이플러스 부동산건설팀
자산분석, 영가, 매매, 전세, 임차, 임대주택, 자선중개
광주·전남·전주지구할
Tel : 062973-9174, 016-757-8800

골프연습장
17억5천

첨단지구 상업용지
240평 270평 510평 567평 1100평 3000평
1000평 1111평 1155평 1800평 2000평 2500평
수원택지개발지구
이주지택지, 협의당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신창택지 개발지구
신원동 4차선 집 1200평 1800평
상당동 2차선집 2500평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측) 1500평
2500평 3000평 3500평 4000평
영인 1800평 순창 4000평 기타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지 17억 5천만
건물매도
5억 8천5천 20억 25억 35억 60억

주유소: 650평35억 600평16억
골프연습장: 120억
광주지역 녹지 사업부지
주유부지 890평 900평 기타
골프연습장부지 4300평 1만8천평
물류·공방부지 2800평 2600평 4800평
수원동 4차선 집 1200평 1800평
상당동 2차선집 2500평
전원주택(주택부지)
-도로·경관 최고
-임곡동 3억 4천 4억
-담양수북 2000평 1900평
공장
장성 3000평 하남공단 980평
첨단지구 A급 상가
임대 45평 50평 기타

첨단 상업용지 · 250평 500평 ·
건물신축시 수익성 높은 나대지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석 -
투자유망특전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